

신세계 강남점 '수산물 대전'...시세대비 최대 40% 저렴
신세계 강남점이 31일까지 식품관에서 '수산물 대전'을 펼친다. 완도 청정해역에서 양식된 전복, 동해바다에서 잡아 바로 삶아 낸 자숙문어, 속초 특산물 붉은 대게, 제주에서 갓 잡아 항공으로 직송한 갈치, 사조산단의 원양산 참치, 러시아 명물 키크랩 등 다양한 수산물들을 시세대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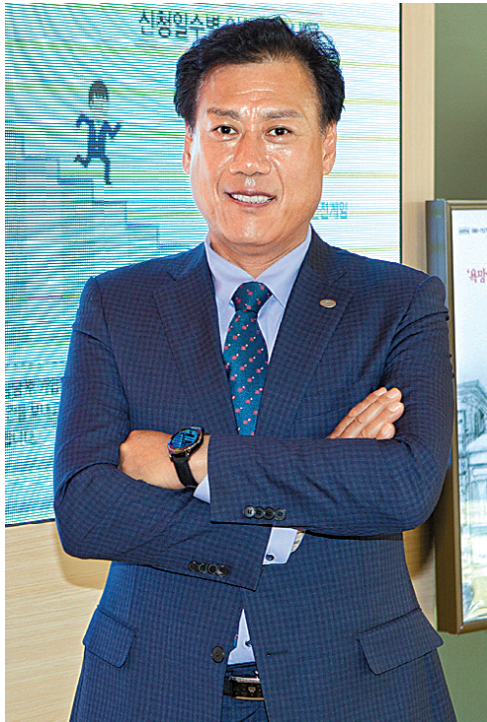


“카지노 예방·치유 프로그램 세계적 수준”

비즈 & 피플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장 원종화 상무

외국엔 카지노 안에 중독관리센터 없어
지난해 상담 1만597건, 재활지원 216건
‘냉각기제’ ‘나의 선택’ 등 예방 정책 마련



“처음에는 이곳으로 모시면 많은 고객들이 육두문자도 하고 귀찮아 하지만, 나중에는 센터 직원들만큼 친절하고 자기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은 없다고 고마워합니다.” 카지노 영업장 입구와 마주한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KLACC) 앞에 선 센터장 원종화 상무.

사진제공 | 강원랜드

카지노는 담배, 술과 함께 ‘죄악산업(sin business)’으로 불리는 분야이다. 최근 복합리조트의 핵심분야로 산업적 중요성을 재평가받고 있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폐광지역 경제지원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세워진 강원랜드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비슷하다.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KLACC)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요즘 중독관리센터는 ‘냉각기제’, ‘자율규제 인센티브제’ 등 독특하고 적극적인 예방, 치유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의 아전사령관인 센터장 원종화 상무를 만났다.

-우선 중독관리센터의 규모와 역할에 대해 말해 달라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상담을 맡는 전문위원은 9명이다. 미술치료, 사회복귀, 간호,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가진 자격증을 모두 합하면 45개나 된다. 우리는 카지노 이용객 앞에 있는 선의의 장어물이다. 이용객들이 건전하게 게이밍을 즐기는 것을 넘어 과몰입이나 중독 단계로 들어서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아주는 것이다.”

-역할을 소개하면서 ‘조금’ 이라고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다.
“흔히 우리 센터에 대해 갖는 큰 오해 중 하나가 우리로 인해 중독자가 없어지거나 대폭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그래서 중독자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센터가 일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사실 과몰입이나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은 무척 어렵고 성과도 더디다. 또한 현실적으로 센터가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다. 법적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제한 외에 다른 규제나 방법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최대한 고객을 도우려 한다.”

-2001년에 개설됐다. 생각보다 꽤 역사가 깊다.
“센터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 하지못해 하는, 생색내기용 기관이라는 것이다. 밖으로 많이 알리지 않아서 그렇지, 오랜 역사만큼 축적된 연구자료와 데이터가 방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꾸준히 개발한 예방, 치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해외에는 우리처럼 카지노 안에 중독관리센터를 상설운영하는 곳이 없다. 적어도 카지노 고객과 관련한 예방·치유 프로그램은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조금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동안 센터가 예방 및 치유한 사례가 적지 않을 텐데.
“지난해 자발적으로 찾아와 상담을 하고 교육한 사례가 5690건, 비자발 치료가 4780건이다. 온라인이나 현장상담을 포함하면 2016년 상담 및 교육 사례가 1만597건에 달한다. 2012년부터 5년간 누적 수치도 5만 건이 넘는다. 특히 중독자에게 새로운 삶을 연결시켜 주는 직업재활지원도 지난해 216건에 달한다.”

-카지노 출입과 관련한 ‘냉각기제’와 ‘나의 선택’이 인상적인데.
“우리는 예방·치유·재활까지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제도를 촘촘하게 연결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냉각기(cooling-off)제는 예방단계의 정책이다. 2개월 연속 월 15일, 또는

2분기 연속 30일 넘게 카지노를 출입하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출입을 제한한다. 그에 앞서 분기(3개월) 출입일수가 30일을 넘으면 무조건 과몰입 예방교육을 받아야 출입이 허용된다. ‘나의 선택’은 최근 1년간 60일 넘게 카지노를 출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율적으로 월 출입일수를 정해 이를 지키면 제한일수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상담이나 교육 운영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애로점도 많겠다.
“과몰입이나 중독, 또는 그 단계로 넘어갈 위기를 맞은 고객은 아무래도 예민하고 흥분된 상태다. 우리 교육 자체가 그들에게 잠시라도 카지노와 거리를 갖는 냉각기를 조성하는 일종의 허물이다. 자연히 욕을 먹는 일은 다반사이다. 또 과몰입이나 중독 위험이 있는 방문객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출입제한 정책 역시 종종 ‘매출 위해 고객 몰갈이를 한다’고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6월9일부터 실시하는 ‘하이원 힐링캠프’에 눈길이 갔다. 게임, 인터넷 등 다른 행위중독 예방치유 기관과 단체가 참가자를 모아 참여하는데, 중독관리센터가 허브 역할을 했다.
“지난해 하이원 힐링캠프를 진행하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합승회 대표가 강원랜드의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자며 의욕적으로 준비한 사업이다. 인터넷, 게임 등 비약물 행위중독을 대상으로 우리가 시설 등 인프라를 제공해 그들이 중독자를 치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개발해 운영하면서 효과를 본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유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앞으로 중독관리센터가 역점을 두거나 시행을 앞둔 사업이 있다면.
“우선 기존 사업의 부족함을 보강하고 확대하는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고객 접점에서 상담하면서 쌓인 각종 사례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자료를 빅데이터로 다듬고 정량화할 계획이다. 이를 사행산업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와 리서치 등에서도 공유하면 보다 나은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정선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원종화 중독관리센터장

▲1966년 생 ▲상지대 회계학과
▲강원대 대학원 조경학 석사 ▲코레일 네트워크 비상임이사 ▲강원지방경찰청 자문위원 ▲(사)함께하는 공동체 이사

경제현장.jpg

호주에서 온 ‘탐스골드 포도’ 맛보세요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31일까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호주산 ‘탐스 골드 포도’를 선보인다. 기존 수입 청포도에 비해 2~3브릭스 가량 높은 20~22브릭스의 고당도 포도다. 특히 일반 청포도와 달리 노랑고 탐스라워 보이는 것이 특징. 가격은 1팩(400g)에 4000원이다. 주한호주대사 제임스 최와 직원 28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탐스 골드 포도’를 소개하고 있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볼트EV, 한 번 충전으로 제주 전역 누빈다

쉐보레, 제주 전기차 에코델리 성황
추가 충전 없이 300여km 전역 완주



27일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제주 전기차 에코델리 대회’ 볼트EV 특별 행사 참가자들이 출전에 앞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 | 쉐보레

‘볼트EV, 한 번 충전으로 300km 코스 완주’
쉐보레 볼트EV가 27일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제주 전기차 에코델리 대회’에서 일반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볼트EV의 최대 장점인 장거리 주행 능력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쉐보레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모집된 고객 10팀(2인 1조, 총 2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총 300여km에 달하는 제주 해안도로와 내륙 코스를 추가 충전 없이 완주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제주 전기차 에코델리의 공식 프로그램은 기존 전기차들의 짧은 주행거리를 감안해 200km 미만의 코스를 충전해가며 완주한다. 하지만 볼트EV는 추가 충전 없이 협재해수욕장, 서귀포, 섭지코지부터 이어지는 해안도로 코스와 성읍마을, 돈내코 유원지 등 내륙 코스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달리며 제주 전역을 누볐고, 참가팀 모두 추가 충전 없이 300km 코스를 가볍게 완주했다. 최장 주행거리를 기록한 진근화(서울, 43

세)씨는 “전기차는 불편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이 있었는데 직접 볼트EV를 운전해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쉐보레 볼트EV의 1회 충전 인증 주행거리는 383km다. 한편 한국지엠 홍보부문 황지나 부사장은 “볼트EV는 압도적인 주행거리와 안정적인 주행감,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 내년 본격적인 국내 도입 물량 확대에 앞서 제품 가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 경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KT,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 참여

KT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안전 운행을 위한 저고도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 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돼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우주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엔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KAIST가 참여해 클라우

드 기반(UTM) 플랫폼 개발과 실험·실증사이드 인프라 구축 및 통신 기술별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플랫폼이 개발되면 드론간, 드론과 건물간 충돌이나 불법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테러 등 사고와 재난 예방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김병근 기자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

위니아 초절전 인버터 냉·난방기

특별할인행사중

초절전 1등급에너지효율 인버터 냉·난방기

전기료절감 NO!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 초기비용0원 - 최장36개월 장기할부
- ◆ 공장,업소,교회,사무실 무료방문견적
- ◆ 초강력 냉방,난방,제습 능력
- ◆ 저소음 컴프레서 장착으로 실내에서도 저소음
- ◆ 전문 설치팀이 원하는 일자에 방문설치
- ◆ 본사전국유통망에 더욱 확실한 A/S
- ◆ 절감된 전기료만으로 기계값이?!

냉난방기 전문판매기업 소선공조

상담문의 ☎ 1577-9486 (전국어디서나 무료)